
第12回서울特別市議會(定期會) 文化教育委員會會議錄 第3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日時 1994年12月19日(月) 午前10時

場所 文化教育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教育監所屬地方公務員服務條例改正條例案
 2. 서울特別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서울特別市教育·學藝에關한各種手數料徵收條例案
 4. 風納土城復元區域內未補償部分要求에關한請願의件
 5. 江南水西地區公共圖書館建立要求에關한請願의件
 6. 1994年度行政事務監事結果報告書採擇의件
-

審査된案件

1. 서울特別市教育監所屬地方公務員服務條例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教育監 提出) ... 1面
2. 서울特別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教育監 提出) ... 4面
3. 서울特別市教育·學藝에關한各種手數料徵收條例案(서울特別市教育監 提出) ... 5面
4. 風納土城復元區域內未補償部分要求에關한請願의件(金鍾雄議員 紹介) ... 6面
5. 江南水西地區公共圖書館建立要求에關한請願의件(趙文晉議員 紹介) ... 13面

6. 1994年度行政事務監事結果報告書採擇의件 ... 20面

(10時 32分 開議)

○委員長 李喆鎬; 成員이 되었으므로 서울特別市議會 第12回定期會 第3次 文化教育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1. 서울特別市教育監所屬地方公務員服務條例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教育監 提出)

○委員長 李喆鎬; 議事日程 第1項 서울特別市教育監所屬地方公務員服務條例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먼저 教育廳 關係公務員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鎭成; 企劃管理室長 金鎭成입니다. 서울特別市教育監所屬地方公務員服務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提案理由를 말씀드리면 地方自治制의 本格的 實施와 더불어 公務員의 地域住民에 대한 奉仕義務를 보다 분명하게 규정하는 등 公務員의 義務에 관한 規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整備하고 出張公務員의 勤務姿勢, 勤務服裝 등 경미한 事項과 勤務時間, 休暇 등 大統領令인 公務員服務規程에 連繫되어 改正되는 事項에 관한 規정은 教育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委任하며, 또한 公職者 行動律에 관한 규정 등 일부 不合理的 規定을 삭제하는 등 現행 條例를 全體的으로 整備함으로써 公務員服務管理의 효율을 기하고 教育監所屬 公務員의

服務에 관한 諸規定을 教育自治의 趣旨와 實情에 맞게 整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主要骨子を 말씀드리면, 먼저 公務員의 住民에 대한 奉仕義務를 보다 분명하게 規定하고, 公務員의 창의와 성실의무에 관한 事項을 新設하며, 또한 公職者 行動律에 關한 規定을 일부 不合理的 規定을 삭제하며 出張公務員의 勤務姿勢, 公務員의 勤務服裝, 勤務時間, 休暇 등에 關한 事項 등은 教育規則에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改正條例案은 첨부해 드린 改正案을 參照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改正根據는 地方自治法 第15條 및 參考로 現行 條例를 添附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서울特別市教育監所屬地方公務員服務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李喆鎬;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 專門委員 金長虎; 지금부터 서울特別市教育監所屬地方公務員服務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하여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

(報告)

서울特別市教育監所屬地方公務員服務條例改正條例案 檢討報告

(뒤에 실음)

.....

이상으로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李喆鎬; 그러면 本 件에 대해서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永輔 위원, 말씀해 주세요.

○李永輔 委員; 李永輔 委員입니다.

서울特別市教育監所屬地方公務員服務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하여 公務員 服務에 관하여 包括적으로 委任을 했으나 市民의 權利 義務와 關係가 없는 行政規則적인 性格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그 所屬公務員間에 特別權力關係에 관한 그런 事項으로써 그 委任을 概括적으로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企劃室長께서 이것에 대해서 答辯해 주세요.

○企劃管理室長 金鎮成 ; 企劃管理室長 金鎮成입니다.

지금 李永輔 委員님께서는 公務員의 服務에 관하여 包括적으로 委任되어 있는데 이것은 市民의 權利義務와 關係 없는 行政規則적인 性格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內部的인 問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概括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意見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委員님께서 指摘해 주신 바와 같이 教育監 所屬 地方公務員 服務 條例案의 委任을 받아 教育規則으로 정하고자 하는 事項이 公務員의 勤務時間, 休暇, 出張公務員의 勤務姿勢 등 行政內部事項에 관한 것으로써 이는 住民의 權利義務와 直接 關聯이 없고 다만 特別權力關係 內에 內部關係事項에 관한 事項으로써 이러한 事項에 대한 委任은 自治立法機關인 議會의 同意를 얻는다면 包括委任도 可能하다고 저희는 判斷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委任形式에 있어서 委員님께서 지금 指摘하신 바와 같이 지금 問題가 있다면 概括委任하는 問題도 저희는 別 問題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만 公務員의 勤務時間, 休暇 등에 관하여 具體적인 事項은 教育規則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저희 原案대로 委任하여 주신다면 저희들로서는 저희 公務員 服務에 效率적인 管理에 큰 도움이 될까 생각이 됩니

다.

이 점 理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永輔 委員; 理解하는 것이 問題가 아니고 包括的으로 委任을 했잖아요?

○企劃管理室長 金鎮成; 네.

○李永輔 委員; 그런데 지금 答辯은 概括的으로도 委任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兩論的인 答辯을 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答辯이 어디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金鎮成; 그것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住民하고 直接 關係가 없는 事項이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에서 저희가 당초에는 包括委任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李委員님이 指摘하신 것을 보니까 그것도 너무 包括的인 것보다는 概括的으로 委任하는 것이 좋다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그대로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李永輔 委員; 아니, 글세 包括的으로 委任을 해 놓고 지금 그것에 대한 質疑가 있으니까 概括的으로 해도 좋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企劃管理室長 金鎮成; 네.

○李永輔 委員; 그런 얘기인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그런 얘기같네요. 住民하고 직접 關係가 없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包括的으로 해도 되고, 概括的으로 해도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金鎮成; 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補充說明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소소한 問題는 그때 그때 狀況에 따라서 수직변경이 되기 때문에 敎育規則으로 包括的으로 委任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앞으로 일을 하는데 아주 效率的이겠습니다. 그러나 包括委任은 原則的으로 금지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형식에 問題가 있다면 다시 생각할 수도 있다하는 그런 意見입니다.

○李永輔 委員; 理解는 가는데,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그 答辯自體가 좀 이상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喆鎬; 金寅東 委員님, 말씀해 주세요.

○金寅東 委員; 오늘 教育監 所屬 地方公務員 服務 條例改正 條例案을 보면 지금 大統領께서 教育立法을 主張하시면서 지금 教育에 대한 熱意를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이고 계시고, 또 지금 전체 國民들이 教育界만은 온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여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큼니다. 社會 곳곳에 各種 事故가 일어나고, 또 犯罪, 이루 말할 수 없이 혼미와 혼돈이 거듭되고 있는 이러한 때에 教育界만은 우뚝 서서 정말로 아주 상세한 服務規定을 만들어서 이것이 타의 귀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이번 服務 條例 改正 條例案을 낸 理由가 무엇인지 상당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 指摘을 한다면 지금 第2條2의 責任完遂라고 하는 責任完遂가 싹 빠져버렸어요. 말하자면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責任을 다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냥 第4條로 奉仕로 해가지고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責任을 지겠다는 얘기가 없어졌어요. 지금 우리 社會가 오늘날 이렇게 병폐가 이루어진 것은 責任을 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問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어떻게 教育界조차 責任을 회피하는 이러한 자세를 갖도록 했느냐 하는 問題가 되고, 또 하나 물론 거기서 여러분들 창의와 성실로써 해서 第6條에 집어넣어서 했지만 거기에 地域社會와 서울教育의 發展을 위해 努力한다고 하는 아주 막연하고, 이것이야말로 不誠實한 條文으로 일

관했어요.

地域社會의 發展과 서울教育의 發展이라는 것이 뭐니까? 이렇게 아무리 해도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 있겠는가, 디테일하게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 보면 非民主的이다, 여러분들도 말한대로 上級者의 職務上의 命令에 복종해야 한다. 이것이 사실 民主的인 社會에서 불합리한 점도 있어요. 職務事項의 命令을 遵守한다 한 것은 좋은데 이 問題가 그러면 다시 어디선가 補完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 補完을 보면 바로 行動律에 있어서, 行動律 여러분 보시죠? 公職者의 行動律. 이것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削除를 합니까? 오히려 이런 것을 만들어서 公職者가 아직도, 그리고 이것 條文을 만들어도 별표 2로 해서 뒤로 보내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결끄러운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 아주 잘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時代 潮流가 어떻게 돼서, 教育界가 어떻게 돼서, 누가 이런 發想을 했는지.

그러면 거기에서 보면 上司의 命令에 服從하자는 것은 좋아도 上司를 尊敬하고 部下를 아낀다는 대목이 여기 분명히 있는데, 지금 보세요. 오늘날 우리 社會가 上下가 없어졌어요. 教育廳에 무슨 勞組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教育勞組?

○企劃管理室長 金鎮成; 없습니다.

○金寅東 委員;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에도 무슨 運動圈 教師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이런 것이 있어요.

班常會와 새마을運動에 앞장서 參與한다고 하는 行動律의 일부를 修正하는 것은 몰라도 行動律 전체를 드러내서 削除한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이런 것이 디테일하게 強調가 됨으로써 敎育界의 位相이 올라가고 정말 敎育者는 모든 國民들이 尊敬하는 그런 차원까지 發展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問題는 저는 일부 字句의 修正이 뒤따라야 될 뿐만 아니라 公職者의 行動律은 절대로 削除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견을 나타내는데 여기에 대해서 答辯해 보세요.

○企劃管理室長 金鎭成; 企劃管理室長 金鎭成입니다.

지금 金寅東 委員님께서 質疑하신 內容은 저희도 共感합니다. 지금 責任問題가 빠졌는데 이것은 責任을 더 強調해야 될 실정인데 여기에 빠진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問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敎育公務員 服務規程으로 敎育部에서 이미 服務規程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그 文句는 빠졌습니다. 따라서 敎育部에서는 지금 委員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責任問題에 대해서 責任問題를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지금 現在 服務規程을 改正作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金寅東 委員; 그러면 作業이 끝난 다음에 해요. 그것을 왜 여기서 미리 고칩니까?

○企劃管理室長 金鎭成; 네, 알겠습니다. 그 問題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 現在 現行條例에 있는 行動律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좋은 것이 많은데 왜 削除했느냐 하는 問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現行條例 별표 2에서 규정된 行動律은 그 內容을 보시는 바와 같이 內容이 개인적인 事項이 대부분이고, 또한 國務總理 訓令으로 制定 施行되고 있는 現 公務員信條에 거의 포함되어 있는 內容과 重複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削除했습니다.

니다.

또한 委員님께서서는 이러한 問題만 가지고 이것을 條例로 改正하는 것이냐, 그 改正하는 根本적인 중심이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現在 이 條例案의 字句修正이나 文句修正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今年 5月 16日字로 國家公務員에게 적용되는 公務員 服務規程이 改正이 일단 됐고 거기에서 公務員의 士氣振作을 위해서 公務員의 海外 私的旅行을 申告制로 하고 종전의 것을 廢止했습니다.

아울러 公務員 配偶者에 대한 慶弔事도 特別休暇를 받을 수 있도록 規程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地方公務員法에도 부합을 시키려니까 저희 條例를 改正하는 입장이 불가피해서 어차피 改正을 할 바에는 全般的으로 한 번 修正해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改正 作業을 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金寅東 委員; 그 國務總理승 가져와 보세요.

國務總理室에서 전반적인 服務規程을 다시 내려보냈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 확인을 안 했는데 그것 가져와 보세요. 거기에 보면 行動律이 對內關係, 對外關係까지 이렇게 성실하게 規程은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식으로 이 條例改正案에 대해서는 좀 留保를 할 것을 정식으로 動議합니다.

○委員長 李喆鎬; 資料 要請한 것 보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金寅東 委員; 내가 거듭 얘기하지만 지금 敎育界가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래서 우리 文化敎育委員會에서는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전체 委員들이 얼마든지 오히려 여러분들을 信賴하고, 또 지금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그렇게 하시는

데 대해 우리가 報答을 하고 있는 판국인데 이 問題는 本委員 생각에는 좀 保留하는 것으로 해서, 資料도 못 가지고 오는 것 보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文化敎育委員會에서 의견을 내면 保留를 同意하시고 이 다음에 服務規程 改正할 때 다시 더 손 봐서 하세요.

○企劃管理室長 金鎮成; 네, 알겠습니다. 지금 金委員님이 提案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더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委員長 李喆鎬; 그러면 서울特別市敎育監이 제출한 서울特別市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服務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해서 지금 金寅東 委員께서 일단 이 案은 保留하자고 하는 案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 委員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朴善童 委員; 保留하는 것을 同意합니다.

○委員長 李喆鎬; 그러면 金寅東 委員께서 낸 이 改正條例案은 保留하자는 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再請이 들어와서 일단 이 案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이 案은 전체적으로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서울特別市敎育監이 提出한 서울特別市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服務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해서 우리 金寅東 委員이 發議하신 대로 保留하자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아서 이것을 保留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그러면 우선 충분히 이것을 다시 再檢討해서 충분한 資料를 提出하면서 그 때 다시 올리도록 그렇게 保留하겠습니다.

2. 서울特別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教育監提出)

(10시 54분)

○委員長 李喆鎬;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서울特別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教育廳 關係公務員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柳根夏; 教育廳 管理局長 柳根夏입니다.

서울特別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

(報告)

서울特別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提案說明

(뒤에 실음)

.....

○委員長 李喆鎬;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金長虎; 專門委員입니다.

지금부터 서울特別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의 檢討報告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報告)

서울特別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

(뒤에 실음)

.....

이상으로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喆鎬; 그러면 本件에 대해서 먼저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質疑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서울特別市教育監이 提出한 서울特別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

3. 서울特別市教育·學藝에關한各種手數料徵收條例案(서울特別市教育監 提出)

○委員長 李喆鎬;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서울特別市教育·學藝에關한各種手數料徵收條例案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教育廳 關係公務員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柳根夏; 教育廳 管理局長 柳根夏입니다.

서울特別市教育·學藝에關한各種手數料徵收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提案理由를 말씀드리면 現行 각종 手數料徵收條例中

地方自治法에 根據하여 制定, 運用하고 있는 條例를 하나로 統合하고, 서울特別市教育廳 및 그 傘下機關의 行政情報에 대한 일반인의 閱覽·複寫要請時 手數料를 徵收하는 根據規定을 마련하며, 또한 手數料를 徵收하는 事項을 보다 細分化하여 規定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主要骨子を 말씀드리면 서울特別市教育費特別會計諸證明手數料徵收條例와 서울特別市中學校入學및中·高等學校轉·編入學配定手數料徵收條例를 각각 廢止하여 이를 서울特別市教育·學藝에關한各種手數料徵收條例案으로 統合하고, 一般人이 行政情報 公開資料의 閱覽 또는 複寫 등을 申請할 경우 그에 따른 手數料를 徵收할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諸證明에 關한 事項 中 手數料를 徵收하는 證明의 種類를 보다 細分化하여 規程하였으며, 手數料徵收에 대한 根據法令을 目的條項에 明示하였습니다. 社會團體申告에關한法律施行令의 改正으로 手數料 徵收根據가 없어진 서울特別市教育·學藝에關한 社會團體登錄에關한手數料徵收條例는 이를 廢止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制定根據는 地方自治法 第128條 및 第130條이며, 別添 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喆鎬 ;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金長虎 ; 지금부터 서울特別市教育·學藝에關한各種手數料徵收條例案에 대하여 檢討報告드리겠습니다.

.....

(報告)

서울特別市教育·學藝에關한各種手數料徵收條例案 檢討報告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喆鎬; 그러면 本件에 대해서 먼저 質疑하실 委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 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서울特別市教育監이 提出한 서울特別市教育·學藝에關한手數料徵收條例案에 대해서는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 없으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안

(뒤에 실음)

.....

○委員長 李喆鎬; 教育廳 關係公務員 퇴장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風納土城復元區域內未補償部分補償要求에關한請願의件(金鍾雄 議員 紹介)

(11時 08分)

○委員長 李喆鎬;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風納土城 復元區域內 未補償部分 補償要求에 관한 請願의 件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먼저 本件을 紹介하신 金鍾雄 議員님 나오셔서 趣旨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雄 議員 ; 안녕하십니까? 松坡區出身 內務委員會 金鍾雄 議員입니다.

尊敬하는 李喆鎬 委員長님을 비롯한 文化教育委員 여러분 앞에서 저희 地域住民들의 宿願事業 中の 하나인 風納土城復元에 따른 民願事項에 대하여 그 請願을 紹介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익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風納土城은 1963年度에 文化財로 指定된 사적 제 11호로써 총 길이 2,680m 중에 77년에 446m를 복원하였으며, 254m는 排除하여 현재 住宅이 建立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080m가 未復元되어 있습니다. 현재 未復元된 區域은 93년부터 復元事業이 시작되어 豫算 總 復元費 840餘 億원 中 93年度에 100億원, 94年度에 50億원 來年度에 역시 50億원이 策定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問題의 請願은 2次 復元事業이 시작된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復元計劃 地域內에 居住하던 私有地 134筆地에 地上建物 49棟 211世帶에 730餘 名의 居民은 전부 補償을 받아 移住를 했습니다.

또한 小地主 일부에게는 土地補償도 完了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大地主를 비롯한 몇몇 地主들에게 土地補償만 完了하면 本工事に 着手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本件의 請願人들은 지금껏 說明드린 2次 復元地域의 民願이 아니고, 옛날 77年度에 1次 復元當時 豫算不足과 本人들과의 協商에서 누락되어서 未補償된 建物 19棟에 40世帶가 현재 30餘年間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껏 財產權 行使를 못한 채 30년이 넘는 세월을 文化財라는 미명에 묻혀서 私有財產權을

保護받지 못하고 지금껏 참아왔으니 이제는 2次 復元區域 內의 民願도 모두 解決됐으니 우리도 補償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本議員의 見解로는 현재 執行部에서는 토지값 補償부터 하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만 本件의 現地狀況을 고려해볼 때 優先的으로 청원인들의 請願을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執行部에서는 2次 復元事業이 늦어지지 않겠느냐는 憂慮의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제 2次 復元事業은 어차피 억울한 民願人들은 다 解決되었습니다. 이제 땅 地主들에게 땅값만 補償하면 되지만 이 사람들은 오랜 세월을 保護區域 內에서 어렵게 살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民願만 해결되면 바로 土地補償이 끝난 후에 工事が 着手되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計劃年度 內에 完工치 못할 바에는 30餘 年の 세월을 참아온 이들부터 救濟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本 請願을 紹介하게 되었습니다. 별도의 豫算適用이 不可하면 既 編成되어 있는 來年度 豫算으로라도 優先的으로 請願人들의 民願을 해결할 수 있도록 文化教育委員會에서 根據를 마련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의 請願紹介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喆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文化觀光局 關係公務員 나오셔서 執行部の 意見を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 張正植 ; 지난 12月 7日字로 서울市 人事發令에 따라서 道峰區廳長에서 文化觀光局長으로 補任된 張正植입니다.

먼저 執行部 意見を 말씀드리기 전에 委員님 여러분께서 양

해해 주신다고 하면 12月 13日字 市 人事發令에 따라서 서울 特別市 公務員教育院 教學課長으로 勤務하다가 文化觀光局의 文化課長으로 李老根 課長이 補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委員님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鍾雄 議員님께서 紹介하신 風納土城 復元區域 內的 未補償部分에 대해서 既 復元된 地域에 있는 土地에 대해서 빨리 補償을 해달라고 하는 請願事項에 대해서 執行部の 意見を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鍾雄 議員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風納土城은 1963年 1月 21日 文教部告示로 國家指定 사적 제11호로 指定이 되었습니다.

總 延長은 2,680m이고, 87년에 446m를 復元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總 補償對象은 1,810m에 2萬 5,373坪이 지금 未補償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여기에는 未復元區間인 앞으로 復元해야 할 그런 區間으로서 土地 110筆地에 2萬 3,043坪, 建物 41棟이 지금 그대로 있고, 방금 金鍾雄 議員님께서 請願하신 既 復元區間에 補償이 아직 안 된 것이 土地 56筆地 1,919坪, 建物 20棟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風納土城을 완전히 復元하는데 대한.....

○金寅東 委員; 建物이 있다니 무슨 얘기야.

○文化觀光局長 張正植; 네, 建物 20棟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市에서는 당초 年次的으로 補償하기 위해서 總 事業費가 846億원이 所要됩니다. 그래서 이제 93년부터 94年 兩大年度에 150億원을 補償費로 策定해서 既 投資를 했고, 95年度에 200億원, 96年度에 200億원, 97年度에 176億원, 98年度에 120億원 해서 98年度까지 補償을 마치고 復元工事を 완전히 마칠 計劃으로 推進 中에 있었습니다만 委員님 여러

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地下鐵 建設, 또 內部循環道路 建設 이런 事業費가 엄청나게 많이 所要되는 그런 중요한 時期에 있기 때문에 저희 局에서는 200億원을 來年度 豫算에 補償費로 要求했습니다만 編成過程에서 50億원만 補償費로 策定이 되어서 市議會의 議決을 거쳐서 지금 公布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미 風納土城 既 復元區間 內에 있는 土地 56筆地 建物 20棟이 왜 補償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殘餘筆地 56筆地 1,919坪은 당시 計劃할 때는 事業 計劃區間에서 除外되었습니다. 당시에 推進할 때는 除外되고, 나머지 區間을 事業區間 內에 넣어서 補償을 하고 이 區間 內에 약간 未補償 區間이 있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순수한 事業區間만을 補償하는 것이 行政執行上의 慣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民願이 야기되었는데 이제 95年度에 編成된 50 億원으로 既 復元區間을 만일에 補償을 한다고 그러면 95年度에는 未復元區間 補償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未復元 區間的 또 다른 集團民願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復元 事業 期間 遲延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선 未復元 區間을 補償을 하고, 年次的으로 豫算을 策定해서 執行할 計劃으로 있습니다.

단 95年度 豫算執行은 風納洞 住民의 意見을 최대한으로 수렴해서 管轄 松坡區廳長과 協議해서 松坡區廳長이 現地實情을 대단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住民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補償優先順位를 決定해서 執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未補償區間에 대해서는 補償原則을 建物 첫째, 優先을 하고 그 다음에 小筆地를 우선하고, 그 다음에 可

視圈을 우선으로 해서 현지 사정에 따라 區廳長이 調整 施行
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5年度에 50億원이 策定되
어 있습니다만 지금 請願 件은 40億원이 소요되는 그러한 地
域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管轄 區廳長과 협
의해서 원칙에 따라서 未補償 區間을 먼저 補償을 하고, 또
이것도 管轄 區廳長과 협의해서 효율적인 豫算執行이 되도록
해서 年次的으로 推進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5年
이 지나고 96年, 97年이 되면 우리 서울市 豫算 形편이 조금
은 호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나머지 未補償區間에
많은 豫算이 策定되어서 補償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計劃으로 方針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喆鎬; 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檢討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長虎; 지금부터 風納土城 復元區域 內 未補償部
分 補償要求에 관한 請願에 대하여 檢討報告드리겠습니다.

.....

(報告)

風納土城復元區域內未補償部分補償要求에 관한請願 檢討報
告

(뒤에 실음)

.....

이상으로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喆鎬; 그러면 本 請願에 대해서 質疑하실 委員 계
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雄 議員; 委員長님 제가 補充發言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喆鎬 ; 補充發言해 주세요.

○金鍾雄 議員; 지금 執行部 얘기나 우리 專門委員께서 檢討

報告를 했습니다만 하나 參考해 주실 事項은 未復元된 區域 內에는 지금 來年度에 50億원 가지고는 事業을 할 수가 없는 狀況입니다. 그러면 未復元된 區域 內에는 地主들에게 땅값만 補償해 주는 이외에는 모두가 다 그 위에 살고 있던 住民들은 다 移住를 했기 때문에 이제 民願은 既 復元된 그쪽 地域 사람들이 가장 큰 民願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地域은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今年에 한 200億 정도가 되었었다면 그 地主들에게 땅값을 어느 部分 해 줄 수 있습니다만 이 50億원으로는 땅값은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40世帶가 살고 있는 이 民願만 解決되면 그다지 未復元部分에서는 큰 民願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 점만 委員님들께서 參考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喆鎬; 孫馥 委員, 質疑해 주세요.

○孫馥 委員; 孫馥 委員입니다.

먼저 本 請願에 대해서 本委員이 現場에 가서 지난번 사진도 다 찍고, 住民意見도 들어보고 했습니다만 지금 執行部の 關係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請願이 接受된 것이 상당히 오래된 事項인데도 앞으로 松坡區廳長과 협의하여 優先順位를 決定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말에 矛盾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77년에 기 復元된 地域에 왜 2,000坪 정도의 土地를 補償하지 않았던 이유하고 또 그 446m邊에 있는 文化財 保護區域으로 指定된 현재 位置가 既 文化財 價値로서의 復元을 할 때 당시에 그 地域은 文化財 地域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또 그때 당시에 補償協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랬던 것인지, 물론 과거에 오래된 일이지만 지금 와서 그러면 앞으

로 補償만 爲主로 한다면 물론 돈만 있으면 그것을 文化財 地域으로 補償하고 買入을 하면 되겠지만 이미 文化財의 價値로서 그것이 다 既 復元된 地域에서 가치가 없다면 그 동안 왜 그 地域에 그렇게 묶어두어서 住民들의 피해를 가져왔는지 이런 것 전혀 答辯이 없어요.

그리고 松坡區廳長과 협의하여서 決定한다 했으면 松坡區廳長 지금이라도 한 번 불러서 여기서 협의하세요. 그래가지고 이 請願에 대한 진짜 市民의 不便을 解消하는데 도움이 되어야지, 이것 檢討하겠다고 얘기하면 이 請願에 대한 하나의 新 병성을 어디서 市民들에게 알릴 權限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 張正植; 具體的인 內容은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擔當하는 實務課長이 구체적으로 答辯을 드리도록 양해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文化財課長 柳時源; 文化財課長 柳時源입니다. 孫馥 委員님께서 質疑하신 內容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文化財는 文化財 部分이 있고, 그 文化財를 保護하기 위한 保護部分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城郭같은 경우 文化財로 指定된 部分이 있고, 그 城郭으로부터 한 10m 정도는 保護區域으로 設定합니다. 風納土城도 마찬가지로 文化財 部分이 있고, 保護區域 部分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公園같은 것 指定해 놓고 補償 안 되는 部分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다른 地域은 保護部分에 대해서는 補償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風納土城은 특수한 部分이기 때문에 77年度에는 文化財 部分만 補償을 하고, 保護區域 部分은 補償 안하도록 이렇게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 자꾸 民願이 일어나고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補償計劃에는 文化財 部分도 補償을 하고, 文化財

部分 外에 保護區域도 補償하도록 이렇게 해서 전부다 補償하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事業計劃을 짰습니다.

그래서 이 部分이 지금까지 補償이 안 된 것은 文化財 部分이 아니고, 保護區域 部分이었기 때문에 補償이 안 되었습니다. 現地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철책이 쳐져있고, 철책 밖에 지금 建物들 그대로 使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部分은 保護區域에서 解除되어도 文化財의 손상은 없을 것 같아서 수차에 걸쳐서 文化財管理局에 저희들이 解除要請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文化財管理局에서 너무나 중요한 文化財이기 때문에 백제초기에 國家形成 過程을 研究하는데 아주 중요한 資料이기 때문에 이것은 保護區域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反映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再昨年에 그러면 100億원이 策定이 되었을 때 이 돈을 松坡住民들이 기이 74年度에 復元된 部分에 住民들도 달라고 要求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補償을 받을 部分에 대해서도 달라고 要求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걸쳐서 對策會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때 松坡區廳에서 우선 그런 未補償 部分들이 많으니까 일단 앞으로의 영세한 조그마한 建物들을 爲主로 補償을 하자 그래서 補償을 推進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계속 市가 어떤 計劃을 세워가지고 推進하는 과정에 그것을 다시 변경하면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推進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建物部分을 말씀을 하셨는데 소개하신 金議員님께서, 이것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全體 總 補償해야 될 建物이 61棟이 있습니다. 그 중에 昨年에 저희들이 26棟을 補償하려고 그랬는데 돈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20

棟밖에 못했고 앞으로 41棟이 남아 있습니다. 이 41棟이 어떻게 되었든 補償이 完了가 되면 일단 땅은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이쪽 기이 補償區間內에 또 建物補償하는 方向으로 建物이 있는 부분을 優先的으로, 하여튼 기이 補償區間이든, 앞으로 補償할 區間이든 建物を 優先的으로 補償해 나가는 方向으로 저희들이 松坡區廳하고 협의를 해서 處理를 하겠습니다. 원체 財源이 작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것이 참 解決해 드리면 좋은 일인데 원체 財源이 작기 때문에 저희들이 補償이 잘 안되고 있는데 이 점을 諒解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孫馥 委員; 잠깐만요, 請願의 趣旨는 認定하죠?

○文化課長 李老根; 네, 그렇습니다.

○孫馥 委員; 그러면 95年度 事業에 優先順位를 決定할 때 이 請願의 內容件에도 優先順位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文化觀光局長 張正植 ; 우리 서울市の 方針은 앞에서 간단히 報告를 드렸습니다만 補償의 原則으로써는 建物優先을 하겠다, 또 소필지 우선을 하고, 可視圈 우선으로 하겠다, 그리고 미보상 구간을 優先으로 하겠다 하는 原則에 의해서 推進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 答辯 중에서 松坡區廳長과 협의해서 推進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이 補償區間과 미보상 구간 중에서 어느 것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區間이 아니고, 그것은 실제적으로 補償業務를 推進하고 있는 것은 區廳長입니다.

그래서 筆地를 確定해 가지고 鑑定評價를 하고 하는 것은 區廳長이 하기 때문에 이 原則에 따라서 補償을 해 주도록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의 方針은 今年度 50億 원을 가지고 기이 復元區間,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옛적에는 그것이 事業區域이 아니었습니다. 保護區域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補償해 나간다고 하면 여러 가지 問題가 있기 때문에 來年度 豫算 50億원을 가지고 未復元 區間에 建物を 優先적으로 해서 補償을 하는데 거기도 물론 金鍾雄 議員님 말씀과 같이 民願이 있겠지만 補償을 해 가는 쪽부터 시작해서 補償하기 때문에 그것이야 豫算策定된 범위 내에서 거기서 또 시작해 가지고 補償 즉 해 나가면 問題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해서 그런 原則에 의해서 推進하고 있다는 것을 追加로 答辯드립니다.

○孫馥 委員; 그 原則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未復元하고 既復元하고의 그 어떤 나누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文化財 區域이든, 文化財 保護區域이든 補償을 原則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또 建物爲主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그러면 復元區間에도 하나의 소필지이고 建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局長님 말씀하시는 것은 未復元 區間에 계속 民願이야기 안 되려면 거기에 있는 建物を 다 해 놓고 차후에 보자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文化觀光局長 張正植; 그러니까 建物부터 補償하는데 建物 補償하는 優先順位는 未復元區間이 優先順位에 더 앞서 나가야 되겠다.

○孫馥 委員; 그런 原則이 어디 있어요? 未復元 區間에 建물이 우선 補償되어야 된다는 그런 原則은 어디 있습니까? 請願의 취지가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30年, 40년도 지켜왔는데 같은 맥락 아닙니까?

○文化觀光局長 張正植; 같은 맥락인데 지금 기이 復元區間에

도 補償을 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請願의 趣旨原則에는 同意합니다. 그러나 어느 것부터 補償을 해 줘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優先順位에 따라서 補償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答辯을 드리는 것입니다.

○孫馥 委員; 그러니까 이 請願의 내용도 優先順位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文化觀光局長 張正植 ; 그러니까 優先順位에 따라서 檢討를 하면 우선 未復元區間을 補償을 하는 것이 優先順位에 합당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孫馥 委員; 그런 原則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무슨 方針입니까?

○文化觀光局長 張正植; 原則이 아니고 그런 方針에 따라서 執行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지.

○孫馥 委員; 方針이 있어요?

○文化觀光局長 張正植; 方針이라는 것이 風納土城 復元 方針이죠.

○孫馥 委員; 글썬요, 그것이 未復元 地域에 있는 建物들도 서울市民이고, 똑같은 次元인데 그렇게 原則을 어떤 方針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松坡區廳長하고 協議한다고 그랬는데 이 請願에 대한 建物補償도 本委員으로서 未復元 地域의 建物보다도 더 안타까운 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현장에 가보니까.

○文化觀光局長 張正植;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追加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서도 제가 잠깐 言及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그것이 사업區間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保護區域이었었기 때문에 未補償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찾아서 優先順位로 제일 앞서서 補償을 하게되면 나머지 사람은 더 강한 民願이 야기되기 때문에 일

정한 그런 順序에 따라서 補償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릴니다.

○孫馥 委員; 95年度에는 補償計劃이 여기에는 미치지 못하겠네요?

○文化觀光局長 張正植; 지금 50億원이 策定되어 있습니다만 未復元 區間을 優先해서 거기에도 建物을 優先해서 補償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鍾雄 議員; 未復元 內에는 지금 建物이 다 補償이 되고 生活하던 生活人들이 다 이사를 갔는데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文化觀光局長 張正植 ; 建物이 지금 41棟이 있습니다.

○金鍾雄 議員; 지금 建物만 있을 뿐이지 지금 生活人들은 다 이사를 시킨 것으로 내가 確認을 했는데, 그래서 땅 地主들만 남아 있는데 왜 그렇게 그것을 자꾸 連繫시킵니까? 昨年에 제가 이 問題를 區廳長하고 얘기를 했을 때 今年에 그 분들을 다 소개시킨 다음에 一次的으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請願이 된 것인데.....

○文化觀光局長 張正植; 41棟을 補償을 안했는데.....

○金鍾雄 議員; 삼포레미콘이나 지금 거기는 補償이 問題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大地主들이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완전 完工되기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무슨 問題냐 하면 삼포레미콘이라든지, 이런 큰 會社는 지금 서울시에서도 移住對策을 시킬 방도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차피 復元될 때까지는 거기 事業을 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작은 가장 안타까운 이런 民願들을 解決해 주는 것이 이 執行部에서 할 일 아니냐 이 것입니다. 현재 보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執行部에서 현장에

아무도 나가 보신 분이 없으신 것 같은데 현장을 한 번 살펴
이 보시면 이 請願人들의 본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參考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지금 한 200億원 정도 投資되
었습니다만 한 750億원 가까이 土地補償費用입니다. 지금
來年度 50億원 가지면 거기 가서 몇 m도 補償 못해 줍니다.
지금 이미 土地補償을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本委員이 알기
로는 여기까지는 지금 土地補償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이 위에 있는 집들은 다, 여기에 삼포레미콘하고 공장들
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대로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차피 땅
값을 다해 줄 때까지는 눌러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역 內에 삼십 몇 년간을 억울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구제해 주고 나면 그 다음은 土地補償을 다 해준
다음에 할 수 있는 問題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松坡區廳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사를 다 시켰더
라 이말입니다. 내가 엇그저께 다 確認을 하고 왔습니다.

○李永輔 議員; 執行部가 한 번도 가 본 사람이 없는 것 같은
데 우리가 小委員會를 構成한다든가 우리가 가서 그 후에 다
시 論議하죠. 오늘 結論날 것 같지는 않은데, 執行部가 한 번
도 안 가 봤다는 것은 너무 했어,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된
다고.

○文化課長 李老根;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民願地域에 가
본 것은 아니고 風納土城 전부 다 가보기는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李永輔 議員; 지금 民願地域이 問題가 되고 있는데 무슨 얘
기에요?

○文化課長 李老根; 똑같은 問題를 가지고 昨年에도 상당히
다툼이 많았었습니다. 여기에서 請願내신 內容 金議員님도 다

아시겠지만 區廳에서도 다툼이 많았고, 本廳에서도 몇 번 對策會議을 하고 했었는데 結果적으로는 누가 優先順位를 정하느냐 하게 되면 저희들이 市에서 현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市에서 判斷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昨年에도 여러번 對策會議을 하면서 區 自體에서 優先順位를 정했습니다.

작년에도 既 보상구간에 먼저 할 것인가, 앞으로 할 것 인가 하는 것을 여러 번 아마 아시겠지만 同單位, 區單位에서 會議을 했는데 結果적으로는 區에서 그러면 未補償 地域보다는 그러면 앞으로 나가는 부분 地域에 대해서 建物 爲主로 補償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區 自體에서 優先順位를 決定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承認要求를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번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꼭 예를 들면 未補償部分에 대해서 補償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區 實情에 안 맞으면 안 되는 內容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委員님들한테 참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체를 區하고, 市하고 다시 또 協議해 가지고 그때 結論이 未補償區間에 補償을 미리 해주자, 지금 金議員님이 紹介하신 대로 거기에 또 建物도 남아있고 하니 까 하자 하게되면 저희들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結論을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寅東 委員; 내가 質問 좀 하겠습니다. 金鍾雄 議員이 오래된 民願이기 때문에 文化財는 復元해야 되겠고, 또 民願을 解決해야 되는 이런 양적인 問題이고 또 우리가 서울시 財政이 형편만 좋으면 推進해서 우리 서울에 고도복원을 위해서 상당히 의의가 큰 것입니다, 後孫의 敎育을 위해서도. 아까 課長이 얘기한 것 중에서 모순이 있는데 지금 과거에 우리가 77年度에 우리가 일부 446m 토성복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는 거기에 保護部分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文化課長 李老根; 保護部分에는 補償을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金寅東 委員; 그 區域에는 그러면 保護部分에서는 民願이 전혀 없습니까?

○文化課長 李老根; 지금 그 民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金寅東 委員; 그러면 446m는 그 위쪽에 있는 것 아닙니까?

○文化課長 李老根; 네.

○金寅東 委員; 그때 保護部分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民願이 있었고 그런데 保護部分에 대한 問題에 대해서는 그때 文化財委員들의 意見은 어떻게 되었어요.

○文化課長 李老根; 그러니까 保護部分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 성곽도 마찬가지로입니다만 서울 성곽부분에 대해서는 復元을 하면서 우리가 補償해 줄 수 있는 것은 補償해 주지만 保護部分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서울성곽 경우는. 그런데 風納土城은 원체 零細한 零細民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하겠다 하는 事業計劃을 確定을 지어 놓은 상태입니다.

○金寅東 委員; 아니에요. 내가 알기에는 서울성곽에 대한 復元 때에는 큰 民願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居住地域과 성곽에 성지에 있는 그 部分에는 이러한 民願은 없었어요. 여기는 성곽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서울市長 公館도 성곽위에 짓고 했지만 民願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問題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이런 土城復元이라는 중요한 부분을 處理할 때는 적어도 이러한 民願을 豫測해서, 그러면 지금 保護部分에 대해서는 除外된다는 것이 어느

規定에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아까 區廳에서 區廳長이 優先順位에 따라서 建物を 우선하고, 소필지 우선하고, 道路可視圏 順으로 補償 順序를 한다 이렇게 해 놓고도 93年 3月 30日에 文化財委員 이 既已 復元 延長線 따라 남쪽 방향으로 補償을 하라 이렇게 해서 松坡區 의견을 再調整해 버렸단 말이에요. 松坡區 의견이 그대로 執行된 것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에요. 松坡區 의견이 그때도 再調整 됐다면 松坡區 의견은 언제든지 再調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民願에 따라서. 그래서 이 問題도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松坡區廳에 一任을 할 것이 아니고 적어도 市의 방침에 따라서 적어도 文化財管理局이 어떤 基準을 세워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文化財委員들이 반대하면 금방 의견이 재조정되는데 이것이 矛盾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本委員 생각에는 지금 金鍾雄 議員이 말씀하신 대로 워낙 龍大한 事業이고 아까 局長의 말씀은 96년부터는 상당히 서울시 財政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地下鐵은 계속해서 우리가 延長해야 될 것이고, 또 지금 各種 高速化 道路가 계속 研究해서 施設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는 말이 안 됩니다. 文化財를 復元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의중은 文化의 서울을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 해서 이것은 推進해 나가야 할 것이지 그 問題로 해서 앞으로 豫算이 좋아지면 여기에 넣는다 이런 얘기는 하나의 구실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내년 도에 策定된 50億원을 가지고는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하나 오히려 保護部分에 대한 문제부터 풀어가면서 장래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많은 것을 다 補償을 못할 바에는. 그러니까 이것은 잘 한 번 檢討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라 다시 한 번, 重複되는 문제지만 다시 한 번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善童 委員;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金鍾雄 議員께서 紹介하신 이 문제가 77年度부터 2·30年 가까이 없는 사람들이 그것 改築할 수도 없고, 다시 지을 수도 없고, 財産權을 아주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約 30 億원내지 35億원이면 20棟의 40世帶가 解決이 되는데 이것 優先順位부터 策定하시는 것이 當局의 방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잘 研究해 주세요.

50億원 가지고 大地主들 땅값 치러봐야 얼마나 사겠습니까? 작은 것 하나 民願 解決해 주시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研究좀 해주십시오. 優先順位에 이것을 좀 집어넣는 방향으로 研究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文化財課長 柳時源; 알겠습니다. 金寅東 委員님 質疑하신 내용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文化財를 指定할때는 文化財 자체를 指定하는 것이 있고 南大門도 주변에 保護區域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風納土城 외의 保護區域에 대해서는 收用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風納土城만 保護區域을 收用하겠다고 하는 저희들의 방침에 의해서 收用하는 것이고 保護區域은 일단은 저희들이 收用을 안해도 됩니다. 사실은 法上 收用을 안해도 되는데 特殊한 地域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收用을 하려고 事業을 推進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優先順位 決定하는 데 대해서는 지금까지 文化財 委員들의 의견을 들었거나 決定에 따르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補償 優先順位에 대해서는 專門的인 問題가 아니고 순전히 行政的인 問題이기 때문에 文化財委員들의 의견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朴善童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우선적으로 補償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어떤 問題가 야기될 것인가. 그 問題가 昨年까지 해오던 대로 했을 때 問題하고 지금 또 計劃을 바꿨을 때 問題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고민스럽기 때문에 이 事項을 앞으로 現地實情을 잘 아시는 區廳 關係職員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決定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寅東 委員; 아니, 課長 그것 무슨 얘기에요. 여기에 보면 93年 3月 30日 各界 專門家 意見收斂을 했다, 그런데 補償順序를 區廳에서 정한 것은 建物, 소필지, 街路可視圈順으로 하겠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文化財局長 柳時源; 네.

○金寅東 委員; 그런데 이 文化財委員이 3月 30日 의견을 개진했을 때에는 既已 保存延長線에 따라서 남쪽 방향으로 補償하라. 그것은 建物이 있든 없든, 또 소필지가 어떻든, 街路可視圈이 어떻든 불문하고 어쨌든 남쪽 방향으로 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意見調整을 해서 松坡區에서 會議 結果, 의견 再調整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에요. 여기다 당신들이 전부 整理해 놓고 다른 소리하면 어떻게 해요? 可變性이 있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여기 당신들이

記錄했잖아요?

○金鍾雄 議員; 委員長님, 제가 마지막으로 檢討事項을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請願을 넣기 전에 關係 執行部인 松坡區廳을 방문해서 關係者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결과 그 분들 얘기는 역시 서울市에서 示達하는 방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지 사정으로 보서는 이제 우선적으로는 이 部分을 해줘야 되는데 保護區域이라는 이 名分 때문에 지금까지 文化觀光局에서 未復元部分부터 하라는 指針 때문에 했는데 어떻게 해서든 이번 請願은 제가 事前에 松坡區廳과 협의해서 넣었습니다.

이것을 과연 했을 때 松坡區廳에서 얘기는 서울市에서 指針만 그렇게 해주면 가장 民願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金議員님께서 이것을 請願하셔서 서울市에서 指針만 내려주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점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니까 우리 執行部에서도 參考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喆鎬; 委員長으로서 하나 質問하겠습니다.

지금 金鍾雄 議員께서 請願하신 이 問題는 이미 區廳에서 區廳長과 협의를 했더니 市의 意見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자기네들은 優先順位로 이것을 하고 싶다는 의견 협의를 이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文化觀光局에서는 松坡區廳과 서울市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꾸미겠다는 이런 핑퐁식으로 答辯들을 회피한다면 이 請願의 問題는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아주 묘연해지는 것인데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솔직한 심정을 여기에서 털어놔 주시고 개선해 주셨으면 좋

겠습니다.

孫馥 委員, 다시 한 번 質問해 주세요.

○孫馥 委員; 여러 가지 執行部 얘기하고 우리 同僚委員님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이 請願의 趣旨와 行政의 執行에 차질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本委員 생각 같으면 지난 2年 동안 거기에 대한 우리 市議會가 市費 補償한 實績에 대한 調査權을 한 번 發動을 하고, 또 이 請願에 대한 內容도 앞으로 우리 市議會와 執行부와 松坡區廳간에 補償 優先順位를 決定하는 그러한 방침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방침인지 小委員會를 構成해서 來年度 豫算이 차질없이 執行될 수 있도록 하는 小委員會를 構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에 動議합니다.

○委員長 李喆鎬; 그러면 執行부에 대한 質問은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 問題는 이것으로 質疑와 答辯을 종결하겠습니다.

本 請願에 대해서 執行부의 意見 開陳과, 또 專門委員의 檢討報告와, 또 委員님들이 審査를 深度있게 한 결과, 孫馥 委員께서 本 請願에 대해서 小委員會를 構成하자는 提案이 있습니다. 金寅東 委員이 小委員會 構成에 대해서 再請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議題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特別市議會會議規則 第40條에 의하여 孫馥 委員께서 發議하신 小委員會가 構成되어야 할 것을 宣布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5. 江南水西地區公共圖書館建立要求에關한請願의件(趙文晉議員 紹介)

○委員長 李喆鎬; 다음은 議事日程 第5項 江南水西地區 公共圖書館 建立要求에 關한 請願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먼저 本件을 紹介하신 趙文晉 議員 나오셔서 趣旨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文晉 議員; 江南6選舉區 出身 趙文晉 議員입니다.

尊敬하는 文化敎育委員會 委員長님 이하 여러 委員들 앞에서 水西地區의 市立公共圖書館 建立에 關한 請願紹介를 하게 되었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많은 業務에 시달리면서 또는 우리 사랑하는 후세들의 文化敎育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請願紹介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提出한 請願을 紹介하게 되면 江南區 水西宅地開發地區 아파트는 92年 11월부터 94年 2월까지 入住를 完了함으로써 아파트 團地造成이 完了되었습니다. 水西地區는 東西로 양재대로와 南北으로 밤고개길을 축으로 江南區 開浦洞 및 松坡區 可樂洞, 文井洞 地域과 區分되며, 남쪽 및 서편은 대모산이 자리한 區分된 地域에 位置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地域은 低所得層인 도시영세민의 住居安定을 위한 永久賃貸住宅 建立地域으로 總 1萬 3,320世帶가 있고, 그 중에서 35.4%인 4,700世帶가 小型賃貸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小型아파트의 坪數를 보게 되면 보통 9坪, 10坪, 11坪

이런 정도의 아주 小型인데 대개 맞벌이 부부가 많습니다.

또한 世帶數는 4,700世帶가 되고, 人口數는 한 2萬餘 名이 됩니다.

그리고 이 地域에 國民學校, 中學校, 高等學校 等 8個校가 있어서 全體 學生數가 1萬餘 名의 學生이 공부하고 있고, 앞으로 3個 中學校가 竣工이 되면 3,000名이 더 增員이 돼서 全體 學生數가 이 地域에 1萬 3,000名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私設讀書室이나 學校圖書館施設이 없으며, 他地域 公共圖書館도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日課 後 學生들이 공부 할 공간이 전무하여 크고 작은 靑少年 비위사고가 많이 發生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靑少年들의 文化暢達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靑少年들이 정말 자기들이 공부 할 수 있고, 文化暢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현재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적에 江南區 하게 되면 상당히 아주 自立度가 높고, 부유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經濟的으로나 社會的으로나 文化的으로나 餘他地域보다 상당히 좋은 與件인데 어떻게 江南區 水西地區에 도서관이 더 필요하겠느냐하고 생각하시겠습니까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水西地區는 良才大路가 8車線道路입니다. 良才大路로 인해서 완전히 水西地區는 고립되어 있는 地域입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이라는 것은 學校隣近에 있다든가, 자기 住居地域 隣近에 있어서 徒步로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조금 버스 한 코스를 타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交通便도 하나도 없는 地域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零細아파트다 보니까 한 家庭에 9坪, 10坪 짜리에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아

들, 딸 하다 보면 보통 다섯, 여섯 식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공부 할 수 있는 그런 與件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地域은 여러분들도 新聞이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겠습니다만 상당히 非行靑少年들이 많고, 또는 永久賃貸아파트에서는 가끔 자살하는 精神異常者들도 있고 해서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어떤 참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상당히 뭐랄까 고립되어 있고, 疏外되어 있고 이렇게 어려운 地域에 位置하다 보니까 사실상 靑少年들이 갈 곳이 없다, 공부할 공간이 없다 이래서 간곡히 市立圖書館이 必要하다는 것을 請願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地域 多數住民이 자라나는 世帶,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 이런 問題와 學校長들의 敎化 및 住民들의 地域情報 文化센터로도 活用할 수 있는 公共圖書館 建立을 절실히 要望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당히 請願을 하면서 제가 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水西地區는 현재 未開設 學校用地가 團地 內에 현재 네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學校敷地로 選定되어 있는 이곳에다 圖書館을 지을 수 있는 地理的인 與件이, 입지적인 與件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文化敎育委員님들의 따듯한 선처, 考察해 주시게 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公共圖書館이 必要하다고 해서 住民들은 말할 것도 없고, 水西地區에 8個 學校가 있습니다. 國民學校와 中學校, 高等學校가 있는데 全體 學校長들이 전부다 圖書館이 절실히 必要한 것이니까 開設해 주어야 되겠다 해서 歎願書를 냈는데 中山高等學校 李鎬寬 校長님, 서울水西國民學校 孫五憲 校長님, 水西中學校 李相燮 校長님, 서울旺北國民

學校 金東俊 校長님, 大旺中學校 李鍾賢 校長님, 서울大母國民學校 朴東漢 校長님, 江南工高 申鉉久 校長님, 서울世宗高等學校 金基建 校長님 이하 그 地域에 있는 모든 校長들이 이것 절실히 必要하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地域에 쯤전에도 말씀드렸습시다만 人口가 逸院本洞과 水西洞, 여기 總 人口數가 4萬 7,800名입니다. 아울러서 6歲 以下와 老人層을 除外하고 圖書館 利用對象 人口數는 지금 4萬 3,900名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 既存 隣近에 있는 圖書館 座席數는 불과 374席밖에 안 됩니다. 그 374席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 水西洞에 社會福祉館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執行部에서 말씀하실 것 같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데 水西洞 社會福祉館에 120席이 있고, 城南福祉館에 96席이 있습니다. 또 明化복지관에 102席이 있고, 逸院洞에 있는 靑少年修練院에 56席이 있다고 합니다. 全體 374席인데, 현재 學校 周邊의 學生들과 많은 對話를 나누었습니다만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圖書館을 가고 싶어도 그 멀리 걸어서 20分 30分 걸어서 막상 가보면 앉을 자리가 없어서 돌아옵니다.

또한 저쪽에 逸院洞에 450석 規模의 市立圖書館이 하나 있습니다만 거기는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交通便도 없고 하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러니 꼭 圖書館 하나 만들어줘서 우리 자라나는 靑少年들이 마음껏 훌륭한 사람이 돼서 앞으로 이 나라 장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與件을 갖추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學生들의 歎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地理的인 與件을 우리 여러 委員님들 앞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본의원이 紹介하는 水西地區의 市立公共圖書館 建立에 대해서 깊이 考察해 주시고, 많은 善處 있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請願紹介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喆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文化觀光局 關係公務員 나오셔서 執行部の 意見を 말씀해 주세요.

○文化觀光局長 張正植; 먼저 서울市 전체 公共圖書館 現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市에서는 國立圖書館 1個所, 또 市立圖書館 21個所 等 22個의 公共圖書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各 區別로 均等하게 分布가 되면 참 좋은데 15個 區廳에서는 1個 圖書館 또는 2個 圖書館이 있는데 반해서 中區, 城北, 城東, 冠岳, 瑞草, 中浪, 恩平區 等에서는 公共圖書館이 아직 建立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江南區 內에는 公共圖書館이 3個가 지금 있습니다.

市立圖書館으로서는 開浦洞에 閱覽席 766席, 藏書 6萬 4,000卷을 보유한 開浦市立圖書館이 있고, 江南區 三成洞에는 閱覽席 656席, 藏書 7萬 8,000卷을 가진 江南市立圖書館이 있습니다. 그리고 驛三洞에는 閱覽席 1萬 5,000席과 藏書 27萬 1,000卷을 보유하는 中央圖書館 分館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있는데 반해서 水西地區에는 방금 趙文晉 議員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逸院洞, 水西洞 一帶 宅地開發事業이今年度이면 完了豫定이어서 1萬 6,353世帶, 6萬 1,448名이 지금 入住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근에 學校가 國民學校 3개소, 中學校 2個, 高等學校 3個 해서 8個校에 學生이 1

萬 43名이 지금 登錄돼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市の 圖書館 設立支援 基本方向은 우선 圖書館 未設置 7個 區에 대해서 우선 建立을 支援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委員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5年度에 城東과 中浪, 그리고 冠岳區廳에 각각 20億원씩 未設置區에 豫算支援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各 區別로 建立計劃과 該當區의 基準財政需要 充足度를 根據로해서 40%에서 50% 정도를 支援을 해 나갈 그러한 計劃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請願에서 水西, 逸院地區에 圖書館을 지어주면 좋겠다 하는 請願에 대해서는 그 趣旨와 必要性은 충분히 認定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報告드린 바와 같이 圖書館 未設置區가 7個區나 있기 때문에 優先的으로 未設置區부터 支援하도록 이렇게 하고, 이 중에서 圖書館 敷地가 確保된 城東, 中浪, 冠岳 3個 區廳에 대해서 95年度부터 豫算에 編成해서 연차적으로 支援 할 豫定으로 있습니다.

지금 趙議員님께서 請願紹介하신 江南區에 대해서는 현재 국립분관 등 3개의 公共圖書館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江南 逸院地區에 水西靑少年修練院에 閱覽席 120席의 그런 圖書館이 있고요. 江南綜合社會福祉館에 閱覽席 170席, 이것이 大峙 1洞에 있습니다만 讀書室이 있고요. 그 다음에 城南綜合社會福祉館은 閱覽席 96席으로써 水西1地區에 位置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明化종합사회복지관은 閱覽席 120席에 讀書室이 水西6地區에 있고, 그 다음에 수서종합사회복지관도 閱覽席 56席으로서 水西3地區에 있고, 逸院靑少年讀書室이 閱覽席 450席으로 그 부근에 開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圖書館및讀書振興法上의 도서관은 아니지만 이 부근에 圖書館에 준하는 讀書室로서 상당한 藏書와 閱覽席을 갖춰서 總 994席, 藏書 3,300卷을 보유하고 있는 讀書室이 있습니다. 따라서 圖書館 未設置區부터 우선적으로 建立支援을 하는 그런 方針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未設置地區가 지원이 되면 그 다음에 필요한 事項부터 優先順位를 정해서 장기적으로 投資計劃을 檢討할 필요가 있는 事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委員님들께서 많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喆鎬 ; 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檢討報告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長虎 ; 지금부터 江南 水西地區 公共圖書館 建立要求에 관한 請願에 대하여 檢討報告드리겠습니다.

.....

(報告)

江南水西地區公共圖書館建立要求에관한請願 檢討報告
(뒤에 실음)

.....

이상으로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喆鎬; 그러면 本 請願에 대해서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質問해 주시길 바랍니다.

趙文晉 議員 또 質疑하실 것 있습니까?

○趙文晉 議員; 執行部 答辯에 대해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定都600年事業을 今年에 大대적으로 施行하였습니다. 執行部에서 어느 區는 圖書館이 한두 個가 있고, 어느 區는

없다는 얘기, 未設置 區에 우선 배정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答辯에 대해서 저는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 文化觀光局에서 지금까지 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圖書館이라는 것은 專門委員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先進國을 쫓아가지 못할망정 그 근사치까지는 가야된다, 지금 社會에서 社會惡의 모든 것이 기성세대 기성세대 합나다만 學生들에게 잘못도 항상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學生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지 않고, 우리가 靑少年의 비행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가슴 아픈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中區, 城北, 中浪, 冠岳, 城東 등 지금까지 市立圖書館을 만들지 못한 文化觀光局에 큰 모순이 있었다, 이 잘못을 지금 와서 豫算 타령 할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江南區에다 3個씩이나 만들어 놓았습니까? 江南圖書館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專門委員 말씀마따나 江南教育廳과 共同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용이 안 됩니다.

또 한가지 圖書館은 필요한데 設立해야 되는 것이지 富裕層들 많은데, 또는 個人住宅이 많은데, 이것은 個人住宅이 많은데는 學生들이 學校 갔다 와서 분명히 자기 방에서 공부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水西地區는 완전 零細民들로서 7坪, 9坪에서 어떻게 공부방이 생기겠습니까? 이런 아주 급박한 현실을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配分의 原則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느 區에는 없으니까 해 줘야겠다, 어느 區에는 있으니까 못하겠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事前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이 地圖를 準備했습니다. 현재 이 水西地區라는 것은 완전히 良才大路로

해서 이제는 外國이나 마찬가지로입니다, 구릉지대. 그러니까 이 水西學生들이 他地域으로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지리적인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마다 水西福祉館, 城南福祉館 몇 個 몇 個 있다고 하는데 圖書館은 圖書館으로서의 정식적인 기능을 갖추고, 場所도 준비되어야 되고, 안락한 분위기에서 공부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텐데 현재 社會福祉館을 지으면서 거기에다 圖書館 명분상 몇 個씩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現地에 가 보십시오.

또 한 가지 圖書館 數가 작아요, 56席, 120席, 96席, 102席 전체 374席 밖에 안 됩니다. 아니, 水西에 있는 사람들 교통편도 없는데, 또 다른 데는 잘 살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가용에 태워서 圖書館에 데리고 가고, 데리고 오기도 합니다만 여기는 자가용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전부다 버스편 利用할 수밖에 없는데 이 水西地域에 圖書館까지 가는 버스노선도 없습니다. 이러한 事項을 감안할 때 우리는 필요할 때, 어떤 均等配分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곳에 圖書館을 設立하는 것이 저는 가장 妥當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곡히 여러 우리 委員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어서 江南에 있는 江南圖書館은 江南教育廳과 共同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것은 圖書館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開浦圖書館 가보십시오. 開浦圖書館 제가 압니다만 교통편은 물론 여기서 안 닿아요. 가 보게 되면 현재 애들이 줄을 죽 서서 한두 時間씩 기다리다가 결국 入室도 못하고 오는 애들이 많습니다.

이 水西쪽에 애들은 감히 엄두도 못냅니다. 이러한 施設을 감안할 적에 우리가 豫算타령할 것이 아니고 어떠한 方法으로

든지 필요한 곳에는 놓아줘야 되지 않냐 생각하는 것이고, 특히나 제가 提案한 이 水西地區는 현재 필요없는 學校敷地가 네 군데나 있어요. 學校敷地 네 군데 이것 어디다 써먹을 것 입니까? 우리가 圖書館을 짓고 싶어도 敷地가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敷地가 확보되어 있는 이런 江南 水西地區에 零細民들 이런 學生들에게 공부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것이 그야말로 文化觀光局에서 해야될 事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豫算 타령하는 그런 舊時代的인 발상을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各 區에 필요한 데 圖書館을 建立하지 못한 그러한 것도 반성해 주시고, 圖書館이 꼭 어느 한 區에 한 個씩 있고, 두 個씩 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한 곳에 도서관이 있어야 된다고 本委員은 主張하는 바기 때문에 執行部の 이해를 촉구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喆鎬; 金寅東 委員 질문해 주세요.

○金寅東 委員; 우선 實務的으로 한 번 봅시다. 지금 현재 請願人 등이 建立要求를 하고 있는 請願要旨에 보면 建立位置가 江南區 水西洞 406番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니까 이것은 都市計劃 施設用途로 學校用地로 되어 있어요. 學校用地로 되어 있는데, 물론 所有者는 서울시입니다만 그런데 지금 거기에 文化觀光局에서 아까도 그렇고 우리가 專門委員들어보아요, 專門委員도 檢討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선 거기에 지금 당신들이 檢討를 해 놓아서 우리를 어느 때에 타라는 얘기가, 執行部도. 水西宅地開發事業地區 學校用地로 지정을 서울시教育廳으로부터 해 달라고 해서 指定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놓고 우리 서울시 本廳의 都市計劃局에

서는 都市計劃施設은 他用途로 해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놈의 文書가 어디 있어요. 아니, 우리 委員들
어느 쪽으로 쫓아가라는 얘기가. 그러면 검토의견에서 이 學
校를, 그리고 江南區 水西洞 406番地는 圖書館 建立要請時
가능할 것으로 思料됨 하고 서울特別市教育廳의 意見도 넣었
는데 아니, 張局長 머리 좋은 局長이 이런 文書 하나 檢討를
안 합니까? 이런 文書가 어디 있어요. 우리 委員會에서 분명
지금 趙文晉 議員이 要請한 대로 좋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것이 他 用途로 解除가 곤란하다고 하는 意見이 있고, 또 내
가 알기로 都市計劃法上 學校用地에는 다른 것에 使用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도 執行部 意見을 분명히
개선해야 될 것이고, 또 專門委員은 兩論이 되어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言及이 없이 檢討를 했다는 것이 무슨 무성의
한 檢討냐 이런 얘기가.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趙文晉 議員
의 문제를 우리가 檢討할 수 있어요. 趙文晉 議員 아무리 짓
는다고 해도 學校用地로 해서 圖書館 設置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것 設置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이 問題 大답해 주시기 바
랍니다.

○文化觀光局長 張正植; 먼저 請願 紹介議員인 趙文晉 議員님
께서 꼭 필요한 곳에 圖書館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零細家口들이 많이 사는 곳이어서 교통도 불편하여 꼭 거기
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文化觀光局에서 圖書館을 많이 짓도록 豫算과 관계없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
린 바와 같이 모든 地域에 다 圖書館은 필요합니다. 또 趙文
晉 議員님께서 紹介하신 이 水西 逸院地區에서도 公共圖書館
이 많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필요

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未設置되어 있는 區에도 예컨대 城北같은 데는 貞陵이랄지, 月谷洞이랄지 여러 군데 零細民 密集地域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圖書館이 필요한 地域이 있습니다. 城東 區도.....

○趙文晉 議員; 지금까지 안하다니 文化觀光局에서 뭐한 것이
에요.

○文化觀光局長 張正植;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城東區나 冠岳
區같은 데는 中浪區, 恩平區 이런 데도 低所得市民이 밀집되
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公共圖書館이 있으면 더욱더 편
리하게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실 서울시에서 圖書館을 이렇게 지원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豫算配定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來年度부터 비로
소 推進을 하는데 그것도 專門委員의 檢討報告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는 該當區에서 敷地를 확보하고 또 일정한 여건이
갖춰지면 그것에 대해서 未設置地域부터 순차적으로 支援을
해 나가겠다하는 그런 方針이기 때문에 물론 必要한 것은 인
정합니다만 연차적으로 推進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理
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金寅東 委員님께서 建立位置가 學校用地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公共圖書館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
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水西宅地開發地區 內에는 4個 地區가 學校用地로 지
금 都市計劃 施設이 決定되어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 教育區
廳에서는 그 중에서 水西區 406世帶에 대해서는 圖書館 設立
을 要請 할 때는 가능하다고 하는 意見이 있었습니다만 原則
적으로 우리 서울시의 意見은 學校用地로 都市計劃施設이 결

정된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都市計劃用地로 계속 변경없이 유지하는 것이 대 원칙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市에서는 學校를 지을 수 있는 空地가 거의 存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學校用地로 기이 지정된 그런 地域에 대해서 이러한 저러한 理由를 들어서 그것을 解除해 나간다고 하면 學校用地를 앞으로 確保할 수 있는 方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미 指定되어 있는 것은 특별한 그러한 경우가 아니면 이것은 解除를 할 수 없는 그런 事項이 있고, 그런 원칙에 있다고 하는 것을 報告드립니다.

○趙文晉 議員; 議長, 發言權 주세요.

○委員長 李喆鎬; 네, 말씀하세요.

○趙文晉 議員; 제가 前半期에 都市整備委員會에 있었습니다. 이 바로 옆에 덕수초등학교 일부 學校用地 解除했어요. 저희 都市整備委員會에서 그렇게 反對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學生數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執行部에서 建議했기 때문에 우리가 遂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문고등학교, 지금까지 市에서 땅장사만 시켜줬어요. 골프장 만들어 놓고, 또 용도폐지하고 일반주거지 만들어 놓고서 附加價値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 다했습니다. 學校敷地가 없는데 江南區 大峙洞에 있는 江南大學 敷地는 왜 用途變更 해 줬습니까? 특별한 事由가 무엇이었습니까? 필요 없어서 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이 그때 그때 臨機應變으로 하는 그런 答辯하지 마세요. 또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그 당시 都市整備委員 할 적에 學校用地만큼 죽어도 解除하면 안 된다, 百年大計를 위해서 반드시 지금 현재 우리가 學校用地가 없어서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學校를

짓지 못하는 실정이고 한데 왜 폐지하느냐? 땅이 더 없습니
다. 그러면 專門學校 만들라 이것이야, 특수학교 만들라 이것
이야, 英才教育을 할 수 있는 그런 學校를 만들라 이것이야.
왜 이것을 解除하느냐, 學校用地를 解除한 다음에 언제 또 學
校用地를 確保하겠느냐 하고 엄청나게 제가 都市整備委員會
에서 抗議를 했습니다만 결국 執行部の 뭘니까? 뭘라고 할까
요,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 사실상 부끄럽습니다만 저희들이
아무리 反對하고 反對하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무슨 審議委員
會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데에서 전부 눈감고 解除를
하기로 된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적에 특수한 與件, 특수
한 與件 하는데 水西地區에는 현재 무엇인가 하면 더 이상
人口가 늘어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거기가 완전히
그린벨트 地域이에요. 거기가 완전히 특수한 지역이 되어서
더 이상 人口가 늘어날 수 없는 데이고 學校用地는 學生들이
必要할 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學校로 충분히 수용되
고 있습니다. 또 學校用地가 다들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學
生이 增員되게 되면 자체 땅에다가 新建築物을 增設해 가지
고 學生들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있는 4個의 學校敷
地는 절대로 必要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
이니까 學校用地를 없애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극
구 同意합니다만 이러한 論理 矛盾的인 答辯을 하지 않는 것
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李喆鎬; 金寅東 委員.

○金寅東 委員; 한 번 이것을 整理하죠. 執行部에서 아까 趙
文晉 議員의 發言도 마찬가지로요. 사실 우리 圖書館이 있으
면 多多益善이다. 또 執行部에서도 圖書館의 必要性은 인정하

지만 균형상 아직 未設置 區域도 있고 하니까 優先順位上 좀 밀린다 하는 얘기도 있었습시다만 어쨌든 그러나 그림에도 불구하고 圖書館 設置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 여기 아까 本委員이 말씀한 대로 學校用地 지정에 따른 이 문제가 解決되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先行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또 圖書館 設置에 대한 문제는 역시 執行部の 所管 事項이기 때문에 거기 設立하는 妥當性이 인정이 되고 한다는 얘기도 아까 答辯이 있었기 때문에 學校用地에 대한 解除, 또는 用途變更이 가능한지의 여부, 이러한 문제도 결국은 執行部에서 處理할 問題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문제는 일단 執行部로 다시 大원칙은 정해서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제가 動議를 좀 하고자 합니다.

○李載震 委員; 李載震 委員입니다. 사실 아까 趙文晉 議員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圖書館 問題가 너무 우리 서울市에서 등한시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오늘 이것이 이렇게 請願에 의해서 우리 委員會에서 確定이 된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사정이 안되면 못할 사정이고, 또 당연히 優先順位가 되는 것만은 들어보니까 그럴만도 합니다. 그런데 또 執行部 意見으로는 지금 현재 區에서 垆地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 아까 말씀드린 學校敷地는 어렵다, 이런 여러 가지 안으로 볼 때 오늘 여기서 정말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우리 委員들로서는.

방금 金寅東 委員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사정이 됩니다.

꼭 그쪽에 정말 어려운 零細 賃貸住宅이 많이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사실상 어려운 與件이 있는 데를 해 주기는

해야 되지만 실질적인 우리가 여기서 결의를 한다면, 이것이 사실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請願의 요지를 해가지고 보니까 이제 전부 請願이 들어오면 다음에는 10년이든, 15년이든 다 請願에 의해서 우리는 다 도와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해 줘 봐야 결국 執行部에서 못하면 소용이 없는 이런 龍頭蛇尾가 되기 때문에 執行部の 확실한 소신이 있어 가지고 좀 이러한 앞으로 公共圖書館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豫算, 한 번 쓰고 없어지는 豫算을 줄이고 되도록 圖書館 한 개라도 더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신념을 갖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圖書館을 해결하는 이런 방법을 특별히 講究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問題에 우리가 이것을 여기에서 결의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운 問題인 것 같고, 어쨌든 執行部에서 特別措置를 좀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文化觀光局長 張正植; 제가 추가로 몇 가지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圖書館을 區別로 많이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必要性에 대해서는 就任한지 얼마 안됩니다만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市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92년까지는 사실상 教育委員會가 擔當을 해서 圖書館을 投資를 하고 짓도록 그런 業務分掌上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3년부터 法이 바뀌어서 地方自治團體도 圖書館에 建立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열렸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來年度에 3個 區에 公共圖書館을 짓는 것에 대해서 支援을 할 수 있도록 豫算을 책정했다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사실상 各 區에서 讀書室으로 해서 많은 投資를 해왔습니다. 各 區別로 여러 가지 讀書室을 많이 지어왔습니다. 지금 住民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상 보면 도서관보다는 지금 주택가 隣近에 있는 讀書室을 많이 지어달라고 하는 要求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各 區別로 저도 區廳에 있었습니다만 다른 어느 事業보다도 讀書室을 짓는데 區廳에서 지금 많이 投資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江南區 水西逸院 一帶에도 福祉館에 讀書室을 많이 建立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圖書館을 建立함에 있어서 사실상 都市計劃 施設이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請願에 앞서서 그런 節次를 다 밟아서 이것은 學校用地를 解除하고, 讀書室 用地로 都市計劃 施設 뭐가 되어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公用의 廳舍랄지 그런식으로 이것을 바꾸어 가지고 그 절차가 先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趙議員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學校用地를 또 확보해야 된다. 지금 현재 學校用地가 어렵고 또 앞으로는 지금 學校數를 더 많이 늘려서 학생수를 줄여 나가는 것이 外國과 같이 한 學級當 20名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앞으로 또 전체 우리나라의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선행하지 않고 文化觀光局長이 여기 4個 學校用地로 都市計劃 施設이 결정된 것을 풀어서 圖書館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請願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答辯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제가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理解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李載震 委員; 아까 靑少年讀書室 問題에 대해서 말씀하셨으

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靑少年 讀書室이라고 各 區廳에 있는 것이 몇 개 있죠? 그런데 현재 運營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100원씩 使用料를 주고 들어오는데 거기에 使用料를 아끼기 위해서 난방이나 冷房을 전혀 안 해 버립니다. 냉·난방을 안 해 버리기 때문에 돈 100원을 주고 零細民이 가서 있었는데 얼어죽겠는데 감기가 와 가지고 어떻게 책을 볼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서울市에 靑少年 讀書室이나 이런 데가 지금 몇 군데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事項을 사실 委員會에서 했던 이야기를 외부에 나타나지 않게 이것을 監視 監督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어떻게 運營을 하고 있는가도 해야 되고, 심지어는 人員을 축소해서 하고 있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文化觀光局長 張正植;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喆鎬;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시므로 質疑와 答辯을 終結하도록 하겠습니다.

本 請願에 대해서 執行部의 의견개진과 專門委員 檢討報告를 들은 결과 우리 서울市의 圖書館數는 人口 39萬名當 1個館으로 先進國의 圖書館數인 人口 5萬名當 1個館에 비해서는 절대 부족한 수준에 있고, 우리 文化教育委員會에서도 圖書館 建立의 必要性을 절감하고 있다는데는 아무런 異議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市에서는 豫算上의 어려움으로 圖書館이 전혀 없는 自治區부터 순차적으로 設立 推進中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는 請願의 趣旨에는 충분한 理由가 있다고 인정되나 서울市 豫算上의 問題로 그 實現이 어렵다고 判斷되기 때문에 金寅東 委員의 제안으로 地方自治法 第67條第3項 및 서울特別市議會請願運營規程 第9條第2號에 의거 本會議에 부의하지 않고 執行部에서 處理토록 하자는 意見이 나왔고, 여기

에 李載震 委員의 再請이 있었습니다.

委員 여러분, 다른 意見이나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本 請願은 本會議에 부의하지 않고 執行部에서 빠른 시일내에 解決하도록 촉구하면서 이에 議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6. 1994年度行政事務監事結果報告書採擇의件

(12時 45分)

○委員長 李喆鎬; 議事日程 第6項 1994年度 行政事務監查 結果報告書 採擇의 件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우리 議會에서는 地方自治法 第36條와 서울特別市行政事務監查 및 調査에 關한 條例에 의거 지난 11月 22日부터 8日間 우리 委員會 所管部署에서 깊이 있고 충실하게 監查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監查結果 報告書는 委員님들이 제출하신 監查結果 意見書에 기초해서 作成하였고 그 內容은 배부해드린 報告事項과 같습니다.

먼저 專門委員이 內容을 요약해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長虎; 지금부터 1994年度 서울特別市議會 文化教育委員會 所屬 行政事務監查 結果報告書에 대하여 要約 報告드리겠습니다.

.....

(報告)

1994년도 문화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要約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喆鎬; 그러면 우리 委員會所屬 1994年度 行政事務監查 結果報告書 採擇의 件을 배부해 드린 報告書 案대로 採擇하고자 하는 데 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1994年度 行政事務監查 結果報告書 採擇의 件은 배부해 드린 報告書 案대로 採擇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委員 여러분, 長時間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議事日程을 모두 마치고 散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2時 50分 散會)

○出席委員

李喆鎬 金寅東 朴善童 孫馥

梁元模 吳柳根 李永輔 車奉五

李載震

○委員아닌出席議員

金鍾雄 趙文晉

○專門委員

金長虎

○出席公務員

文化觀光局

局長 張正植
文化課長 李老根
文化財課長 柳時源
서울特別市教育廳
企劃管理室長 金鎮成
管理局長 柳根夏